

제 9 차 총회를 함께 하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제 9 차 총회 동안 기도로 함께 합시다. 제 9 차 총회는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동의하며 신앙이 자라게 하는 말씀으로 숨을 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큼 우리 자신을 의탁하게 되는 길이요, 성인들의 동반을 받아 마음으로 일치를 이루는 자리입니다.

전례와 교회는 기도의 두 날개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중재로서 어머니의 봉헌과 사랑스런 성자의 목소리로 인류의 역사, 세계, 피조물의 희망과 의문들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성부께 고하는 것입니다. 총회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깨끗한 손을 들어' 청해야 하는 성화가 요구되는 선물로서, 총회를 거행하는 조건은 믿고 의탁하며 식별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총회 참석자들이 로마에 모여있는 동안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기도의 장막을 펼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순례자가 되어 국경을 넘어 국가의 문과 공동체의 문 그리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세상을 관통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당신께서 마련하실 미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리스도께 눈길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며 청원기도를 드리는 자매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시며 거리를 좁히고 자매들과 함께 머무르고 살며 기도하기를 요청하십니다.

따라서 기도의 여정은 매일 세계의 여러 지역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미사 중에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에(연중 7-8-9 주) 귀를 기울이며 총회의 계획에 따라 각 나라에서 부르는 마리아의 이름과 다양한 신앙 표현들에 유의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매일을 비추어 주는 영감을 얻을 것이고, 우리에게 한 걸음을 내딛도록 제안하시고 새 계약의 백성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으라는 마리아의 현존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기도의 여정은 상황이 매우 어려운 형제적 생활 혹은 사도직 생활 속에서도 성령의 제안에 따라 마음속에서 조용이 솟아나는 평화의 샘의 원천으로서 회개와 친교의 표징을 살아가는 각 자매들의 자발성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시는 은총에 마음을 열어 서로가 서로를 재 발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며 총회 여정을 동반하며 기쁘게 살아갑시다.

제 9 차 총회 여정

6 월	연중 제 12 주	총회 프로그램	각 나라의 마리아 이콘
29 목	성 베드로와 바오로	09.30: 바오로 가족 회년 미사 18.00: 제 9 차총회 개막식 18.45: 저녁기도 20:30 피정 시작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 (모원의 모자이크) 수도회 전체
30 금	바오로 사도 축일		사도의 모후 바오로 가족
7 월 1 토			그리스도인의 도움 이신 마리아 호주
2 일	연중 제 13 주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필리핀, 사이판
3 월	성 토마스 아퀴나스	피정 마무리	서산 성모님 중국과 타이완
4 화		8.30: 바오로가족과 미사 총회의 공식 출범	순교자의 모후 대한민국
5 수		현실 인식	선한 의견의 성모 마리아 - 알바니아
6 목		조명	로레또의 거룩한 집의 성모님 이탈리아
7 금		조명	파티마의 성모님 - 모잠비코
8 토		현실 대면과 조명	가봉의 어머니 - 가봉
9 일	연중 제 14 주 주일	지속	아빠레시다 성모님- 브라질 트렌타 트레(33) 동정녀 마리아 -우르과이
10 월		방향설정과 식별	루한의 성모님 - 아르헨티나
11 화	성 베네딕도	총통솔 선출	복음화의 성모님 - 페루 마이푸의 카르멘의 동정 마리아 - 칠레
12 수		지속	코파까바나의 성모님 - 볼리비아
13 목		방향설정, 우선권과 활동지침	키퀴퀴라의 성모님 - 콜롬비아 코로모또의 성모님 - 베네수엘라
14 금		지속	과달루페 성모님 - 멕시코
15 토		2017 년 - 2023 년의 6 년간 프로그램을 위한 활동라인 설정	코브레의 카리다드 동정녀 쿠바
16 일	연중 제 15 주일	제 9 차총회 공식 폐막 17.30: Sottocripta 에서미사 거행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 (모원의 모자이크) 수도회 전체

피정 시작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성령청원 기도를 바칩시다.

기도합시다.

천주의 모친이신 마리아님, 모든 세대가 주께서 당신을 위하여 하신 위대한 일에 대하여 찬미노래 합니다. 당신은 동정녀이시고 은총이 가득하시며 선한 목자의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주님을 키우셨고, 사랑하셨고, 주께 귀를 기울이셨고, 주님을 따르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숨을 거두시는 주님을 관상하셨습니다. 주님과 어머니로부터 교회, 복음, 성사, 수도생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순례하는 교회의 희망과 피난처로서 천상교회의 기쁨이십니다. 저도 당신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께 저 자신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봉헌하오니 저를 비추시고, 저를 온순하고 충실하게 해 주소서.

(선한목자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께 드리는 코론치나 1 번)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원의 모자이크)

요한 복음에 의한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샅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 가고 양 떼를 흩어 버린다. 그는 샅꾼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10,10b-18)

침 목

마음 안에서 그리고 입술 위에서 말씀의 메아리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소리 내어 읽읍시다.

생활규칙 91

우리 수도회의 일치는
우리를 하나의 새로운 가족 안에 묶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적으로 받은 다양한 은총에 따라서

사목적 카리스마에 대한
각자의 충실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친교의 등불에 불을 밝힌다. 총회 동안 지속하여 이 불을 켜 놓는다. 불을 밝히는 동안 제 9차 총회에 참석하는 **자매들의 이름을 읽고** 성모 호칭 기도를 **바치며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께 이 자매들을 맡겨드린다.**

성모 호칭 기도

- | | |
|------------------------------------|------------------------|
| ○ 길이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시온의 딸 |
|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기쁨 |
| ○ 진리이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성령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되신 마리아 |
|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의 겸손한 종 |
| ○ 생명이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모든 여인들 중에 복된 여인 |
|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의 말씀을 믿은 복된 여인 |
| ○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 메시아의 어머니 |
| ●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하신 분 |
| ○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성전에서 예수님을 봉헌하신 분 |
| ●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칼로 가슴을 찢으신 분 |
| ○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 | 카나에서 기적을 불러일으키신 분 |
|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하늘에 계신 성부의 뜻을 따르신 분 |
| ○ 말씀이 사람이 되신 성자님, | 말씀을 듣고 간직하신 분 |
|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계셨던 어머니 |
| ○ 굳센 사랑의 성령님, | 고통을 겪으시는 메시아의 통고의 어머니 |
|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의 어머니 |
| ○ 성 마리아님, |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인내하셨던 어머니 |
|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다음은 같은 후렴). | 사막에서 하느님의 보호를 받으신 어머니 |
| ○ 주님의 거룩한 어머니 |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의 표상이신 어머니 |
| 나자렛의 거룩하신 동정녀 | 메시아를 알아보는 이스라엘의 표상 |
| 믿는 이들의 어머니인 새로운 하와 | 천상 예루살렘의 표상 |
| 신앙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후손 | |

각 자매는 모든 공동체를 일치시키는 성모님의 호칭 기도를 덧붙여 기도할 수 있다.
주님의 기도를 노래로 마친다.

축 복

우리 수도회에 특별한 은총의 시기인 총회와 총회 참석자들을 위하여 서로 다 함께 주님의 축복을 청합시다.

베드로 사도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신 전능하신 하느님,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그리스도와 결합시켜 주시고 저희를 축복하소서.

바로 사도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비추신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성령의 새로움에 마음을 열게 해 주소서.

베드로 사도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 맡겨주신 권위로, 바로 사도님, 말씀의 힘으로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인류를 위한 사랑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제 9차 총회가 되도록 저희를 보호하시고 중재해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6 월 30 일

성바로 사도 축일

피 정

바로 가족과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계약으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것이다.

성령청원 기도를 바칩시다.

창세기에 의한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아브람의 나이가 아흔아홉 살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 없는 이가 되어라.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계약을 세우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를 보아라. 너와 맺는 내 계약은 이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매우 많은 자손을 낳아,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서 임금들도 나올 것이다.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네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 너와 네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17,1-7)

화답송

-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이는 복되도다. ● 기뻐하고 모든 복을 받을 것이다.
- 당신 삶의 모든 날에 당신 자녀들의 선을 보기를 바라시니 ● 시온에서 주님 당신을 찬미합니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이는 복되도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께서는 신앙은 풍요로운 체험이고 믿는 모든 이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과의 계약으로 계시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당신 이름의 영광으로 성령께서 저희와 복음선포를 위하여 마리아와 사도들 안에서 완성하신 이 약속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어머니이며 자매인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라고 말씀하신 이중의 정식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2 사무 7,14).”라는 구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준다.(...) 묵시록에서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묵시 21,3)”라는 계약의 이중 정식은 신랑을 위하여 단장을 한 젊은 신부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전망에서 재 발견될 것이다. 새로운 계약은 '자유의 몸으로서 우리의 어머니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갈라 4,26)'인 교회의 모성을 통하여 성부와 그리스도의 사랑 받는 제자들, 형제들 사이에 세워질 것이다. 교회는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형제들이자 성부의 자녀들 사이에서 모성을 수행하는 역할을 받은 마리아 안에서 표상을 찾는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계약은 가족적인 용어로 표현된다. 하느님의 백성은 성령 안에서 교회와 함께 사랑 받는 제자들과 믿는 이들의 장자로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성부의 가족이 된다.

(M. 뚜리안, 주님의 어머니. 교회의 형상. 브레샤 1980, 177 쪽)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7 월 1 일

피 정

호주에 현존하는 자매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계약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저희 가운데 머무르소서.

성령을 청합시다

창세기에 의한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주님께서서는 마르레의 참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 보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천막 어귀에서 달려 나가 그들을 맞으면서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나리, 제가 나리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등 뒤 천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다. (18,1-3.10a)

화답송

-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였나이다. ○ 전능하신 분이 나를 위하여 큰일을 하였나이다.
-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 세세 대대로 나를 복되다 하리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였나이다.

기도합니다.

성부님, 당신은 사랑으로 피조물을 찾아오시고 고생하고 절망에 빠진 인류를 저버리지 않았나이다. 이 기간 동안 은총으로 저희와 함께 머무르소서. 저희가 성령의 도움으로 민첩하게 당신과 만나기 위하여 달려가고, ‘주님의 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하게 하소서. 당신께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어머니이며 자매인 마리아와 함께

여성들은 주위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 안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도록 성령께 인도하기 위해 그들에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남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더욱 충만하게 체험하기 위해 주님을 섬기고 경청하도록 돕는 산파이다.

(M. 포르만, 사막의 어머니들과 함께 기도하다, 메사제로 출판사, 파도바 2008년 21-22쪽)

그리스도인의 도움 이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Mary, our lady help of Christians pray for us.)

7 월 2 일

피 정

필리핀과 사이판에 현존하는 자매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여기 아들과 제자들에게 합당한 좁고 매력적인 길이 있다.

성령청원 기도를 바칩시다.

마태오 복음 에 의한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10,37-39)

화답송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 성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였습니다.
- 우리도 새로운 생명 안에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죄에서 죽고 살게 되었습니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부님, 마리아께서는 자신 안에 육화된 말씀을 경청하였고 성자의 제자가 되셨으니, 마리아의 종재로, 당신께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세례의 보배로운 옷을 다시 입혀주시는 곳인 십자가의 긴 여정에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주시고, 저희 안에 이미 현존하고 세세 대대로 이어질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도록 저희를 불러 주소서. 아멘.

어머니이며 자매인 마리아와 함께

고대 교부들은 교회가 세례성사로 동정 마리아의 모성을 연장한다고 가르쳤다. 우리는 고대 교부들의 증언들 중에 유명한 대 레오 성인의 성탄 강론을 즐겨 인용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의 태에서 얻은 생명의 기원과 같은 기원을 세례성사 때에 쓰이는 세례조의 물 안에 넣어 주신다. 마리아께서 세상에 구세주를 내어 주실 때 높으신 분의 힘과 성령의 감싸임으로(참조, 루카 1,35) 가능했던 것처럼, 세례조의 물도 높으신 분의 힘과 성령의 감싸임으로 믿는 이들을 재 탄생하게 한다. 전례의 기원을 찾기 원한다면 고대 로마의 아름다운 히스파니아 전례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할 수 있다. ‘마리아께서는 자궁에 생명을 잉태하였고, 교회는 세례 성사의 물로 생명을 가져 간다. 마리아의 골육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었다면, 세례조의 물속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입는다. (바오로 6 세, 마리아 신심, 19 항)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Mary, our lady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pray for us.

피정 종료

중국과 타이완에 현존하는 자매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상처받은 신앙이 새로 나게 하소서.

성령청원 기도를 바칩시다.

요한 복음에 의한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뺀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20,26b-29)

화답송

- 사도들 위에 기초를 세웠나이다. ● 우리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나이다.
-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가 되기 위하여 ● 우리는 주님 안에 함께 세워졌나이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사도들 위에 기초를 세웠나이다.

기도합니다.

성부님, 당신의 성자와 평화의 선물 앞에서 그 어떤 문도 닫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마음을 낮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매 새겨진 인류의 상처를 위하여 교회에 손길에 부드러움을 허락하소서. 저희 수도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당신께 사랑하는 성자를 돌려드리며 자녀들의 공동체를 받아들인 마리아처럼 새로운 생명이 풍성한 자궁이 되게 하소서. 아멘.

어머니이며 자매인 마리아와 함께

교회의 모상인 마리아께서는 내밀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통교하신다. 시온의 딸의 이 고통은 부활과 교회인 새로운 백성의 탄생에서 희망을 출산하는 것으로서, 마리아께서는 이를 어머니로서 인간으로서 몸소 겪으셨다. 눈에 보이는 사실을 넘어서서 믿고, 모든 희망을 넘어서서 희망을 걸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공동체의 생존자들이 있다면, 교회는 십자가에서 전해지는 성령의 힘으로 십자가 아래에서 탄생할 수 있다.

(M. 투리안,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 교회의 모상, 브레샤 1980, 174 쪽)

서산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瑪麗亞, 我們的余山聖母, 請為我們祈禱)

7 월 4 일

제 9 차 총회이 법적 구성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자매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비의 손에 이끌리어 구원되었다.

성령청원 기도를 바칩시다.

창세기에 의한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동이 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였다. “자, 이 성읍에 벌이 내릴 때 함께 휩쓸리지 않으려거든, 그대의 아내와 여기에 있는 두 딸을 데리고 어서 가시오.” 그런데도 롯이 망설이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성읍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주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19,15-16)

화답송

- 주님 저를 살펴보시고 시험해 보소서. ● 마음과 정신을 불 속에서 순화시켜 주소서.
- 당신의 선하심이 제 눈 앞에 있나이다. ● 저는 당신의 진리 안에서 걸었나이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주님 저를 살펴보시고 시험해 보소서.

기도합니다.

성부님, 오늘 총회에 모인 자매들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이 자매들이 어떤 유혹에서도 모든 두려움을 밖으로 몰아내는 당신의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성령의 은총으로 당신의 성자에게서 마리아가 받아들인 피로 인한 관대함을 허락하시어 자비의 얼굴을 보이소서. 아멘

어머니이며 자매인 마리아와 함께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흐름 속에서 풍랑에 압도되기를 원하지 않기에, 육지에서 안전하게 걷는 대신, 이 빛나는 별에서 눈을 떼지 않고, 흔들리는 폭풍우와 풍랑 사이에서 비틀거리며 나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만약 유혹의 바람이 세차지면, 고난의 암초에 부딪혔다면, 별을 바라보고 마리아께 청하십시오. 교만과 야망과 비방 그리고 질투의 파도에 부딪혔다면 마리아께 청하십시오. 분노와 탐욕이나 육신의 유혹이 당신의 영혼을 흔든다면 마리아를 바라보시오. 만약 죄의 거대함에 혼란스럽고, 양심에서 자격이 없다고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정의의 공포로 두려워지고, 슬픔의 심연과 절망의 지옥 속에 함몰되기 시작한다면 마리아를 생각하십시오. 위험과 걱정과 불확실 속에 있다면 마리아를 생각하고 마리아께 청하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멀어지지 말고 당신의 마음에서 멀어지지 말게 하시오. 대속을 위한 기도를 얻기 위하여 하느님 안에 받아들여진 마리아의 삶의 모범을 버리지 마시오. 마리아를 따르면 길을 잃지 않을 것이고, 마리아께 기도하면 절망하지 않을 것이고, 마리아를 생각하면 오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께서 당신을 꼭 잡고 간다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께서 당신을 보호하신다면 두려워 마시오. 마리아께서 당신을 인도하신다면 지치지 마십시오. 마리아께서 호의를 베푸신다면 당신의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성 베르나르도, 어머니이신 동정녀께 드리는 찬미가, 치따 누워바 1990년, 53쪽)

순교자들의 모후이신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7 월 5 일

현실의 인식

알바니아에 현존하는 자매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유일한 인류 가족을 위하여
모든 백성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성령청원 기도를 바칩시다.

창세기에 의한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느님께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느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가르를 부르며 말하였다. “하가르야, 어찌 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저기에 있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가서 아이를 들어 올려 네 손으로 꼭 붙들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다음 하느님께서 하가르의 눈을 열어 주시니, 그가 우물을 보게 되었다. 그는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우고 아이에게 물을 먹였다. (21,17b-19)

화답송

- 이 가난한 이가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어주었나이다.
- 모든 고통에서 구하여 주었나이다.
- 거룩한 이들로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리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이 가난한 이가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어주었나이다.

기도합니다.

성부님, 당신께서 귀 기울이지 않고 돌보지 않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자비에서 아무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모든 백성과 함께 당신께서 원하시는 가족을 형성하고, 선을 찾기 위해 대화할 능력을 가지고 형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오늘 저희가 모든 현실 속에서 세계와 역사의 주님이신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업적을 알게 하소서 아멘.

어머니이며 자매인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께서 영혼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저는 내 자신을 드릴 것입니다.”라고 여러분이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구원자,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마음이 넓고 모두를 사랑합니다. “모두 나에게 오너라(마태 11,28)!” 전 인류에게 축복이 내리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모든 민족, 모든 가족, 모든 사람들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은 아름다운 성소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포기하고 나니 마음이 넓어졌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머니들입니다. (야고보 알베리오네, 빠스토렐레에게 강론, III, 1948 년 136 쪽)

선한 의견의 성모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Zoja e Këshillit të Mirë)

7 월 6 일

조 명

이탈리아에 현존하는 자매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무조건적인 순명은 신앙의 희생제물이다.

성령청원 기도를 바칩시다.

창세기에 의한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네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 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22,15-18)

화답송

- 당신께서는 죽음에서 저의 생명을 구원하였나이다. ● 저희 눈에서 눈물을 거두었나이다.
-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 가리이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당신께서는 죽음에서 저의 생명을 구원하였나이다.

기도합니다.

성부님 사랑스럽게 당신께 의탁하며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종 성자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당신께서 저희의 신앙을 시험하실 때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명하며 ‘어머니와 함께 설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주소서. 나자렛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라고 응답하시며 당신의 뜻을 사랑하신 어머니의 중재로 당신께 청합니다. 거룩한 삼위일체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가 영원 무궁히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머니이며 자매인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는 단순하고 소박한 “예”를 통하여 자신에게 오는 모든 것에 깊이 동참하고, 모든 인간의 자리에 선다. 마리아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어지는 구약의 신앙과 순명을 다시 물려받고 완성한다. 신적이고-인간적인 혼인잔치에서 전적으로 내어주는 자세를 통하여 혼인의 실현에 충만하게 참여한다. 여기 전적으로 본받고 따라갈만한 여정이 제시되는데, 이 여정은 어떤 따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마르 3,25).” 이는 매우 묘사력이 뛰어난 화법이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당신처럼 성부의 뜻을 실행하는데 자신을 바치는 자신을 닮은 형제와 자매들인 모든 이로부터 그리고 모든 이 안에서 인간의 형상을 취하기를 원하신다.

(H.U. 본 발타살, 그리스도인으로 묵상하라, 퀘리니아나, 브레샤, 1966, 58-60쪽)

로레토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Beata Vergine Maria di Loreto, prega per noi.

7 월 7 일

조 명

모잠비꼬에 현존하는 자매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백성 안에 어머니들인 사라, 레베카, 라헬과 함께

성령청원 기도를 바칩시다.

창세기에 의한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아브라함의 아우 나호르의 아내인 밀카의 아들 브투엘에게서 태어난 레베카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왔다. 이 소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주 예쁜 처녀였다. 그가 샘으로 내려가서 물동이를 채워 올라오자, 그 종이 그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그대의 물동이에서 물을 좀 들이키게 해 주오.” 그러자 그가 “나리,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들고서는 그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해 주었다. 이렇게 그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해 준 다음, 레베카는 “낙타들도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계속 길어다 주겠습니다.” (24,15b-19)

화답송

- 주님, 당신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당신의 구원으로 저를 찾아오소서.
- 당신 백성의 기쁨으로 기뻐하소서. ● 당신의 유산을 자랑하오리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주님, 당신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께서는 인류에게 혼인 계약 안에서 풍성함의 이콘, 생명이 나고 자라고 고통 받고 죽어가는 자리에 당신의 현존을 담아내는 향아리로서 여성을 주셨으니 당신을 찬미합니다. 지성과 감수성의 선물이 무시되거나 수단으로 변질되어 여성의 아름다움에 상처를 받고, 우는 여성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소서. 성령의 활동으로 축성 봉헌된 이들이 당신의 백성 한 가운데서 연대와 예언과 친교의 표징이 되기 위하여 마리아의 동반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 인류의 주님이며 목자이신 당신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어머니이며 자매인 마리아와 함께

우리는 마리아 안에서 우리의 출발점(말씀의 경청)을 본다.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이 순간부터 참여하도록 부름 받은 충만한 화해와 영원한 생명이라는 도착점을 본다.

마리아는 산 이들의 표징이자, 여정 중에 있는 인류의 표지요, 자기자신과 자신의 사명 사이에 화해한 여성의 표징이다. 여성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형제관계와 우주적인 화해를 펼쳐가는 자리와 역할을 되 찾는 새 인류의 표징이다.

(C.M. 마르티니, 주님의 길에서, 피엠메, 카살레 몬페라토 1985 년, 216-217 쪽)

파티마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Nossa Senhora de Fatima, rogai por nós.)

7 월 8 일

현실과 조명 대조

가봉에 현존하는 자매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현실에 대한 주님의 축복을 감사로이 받아들이자

성령청원 기도를 바칩시다.

창세기에 의한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아버지 이사악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이, 가까이 와서 입 맞춰 다오.”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자, 이사악은 그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였다. “보아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님께서 복을 내리신 들의 냄새 같구나. 하느님께서서는 너에게 하늘의 이슬을 내려 주시리라. 땅을 기름지게 하시며 곡식과 술을 풍성하게 해 주시리라”. (27,26-28)

화답송

-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 주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원하시는 모든 것을 ● 하늘과 땅 위에서 완성하십니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부님,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감싸주시니 세세 영원히 감사 드립니다. 당신의 축복을 갈취 당한 백성들, 땅과 자원을 잃고, 존엄성을 잃고, 발전과 성장의 가능성마저 약탈당한 이 세상에서 필요한 도구가 되기 위하여 지혜를 즐기고 맛볼 줄 알게 하소서. 마리아의 모성적 목소리로 성자와 성령과 함께 찬미 받으시는 아버지께 의탁하는 인류의 울부짖음을 알아주소서. 아멘.

어머니이며 자매인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는 이중의 예고를 받으셨다.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신적 모성에 대한 예고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 준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와 관련된 보편적 모성에 대한 예고다. 그 어느 것도 이 보잘것없고 교만에 찬 세상에 예수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부를 줄 수 없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은총을 주셨다. 세기를 통하여 그분을 끊임 없이 주고 계시다. 은총의 보편적 중개자이시고, 이러한 직무 안에서 우리의 어머니시다.

(야고보 알베리오네,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 182)

가봉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Notre Dame du Gabon, prie pour nous..)

7 월 9 일

현실과 조명 대조

브라질과 우르과이에 현존하는 자매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는 성부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만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작게 만드신다.**

성령청원 기도를 바칩시다.

마태오 복음에 의한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11,25-26)

화답송

- 너희는 육의 지배아래 있지 않다. ● 너희 안에 살아 계시는 성령의 지배아래 있다.
- 만약 너희가 성령의 중재로 육의 일에서 죽는다면 ● 너희는 살 것이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너희는 육의 지배아래 있지 않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사 성제를 드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함께 당신께 감사 드립니다. 당신께서는 항상 지치고 고통 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받아들이시고, 양육하는 빵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포도주로 위로를 주십니다. 당신은 미천한 이들과 친구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자비롭게 대하십니다. 우리 삶이 삼라만상 위에 겸손하고 고귀하신 마리아처럼 복음적으로 작아지는 삶을 닮도록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고, 빛과 위로가 필요한 인류 안에서 당신의 아드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아멘.

어머니이며 자매인 마리아와 함께

여러분의 영혼을 영혼들과 연결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주 큰 행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당의 일을 하는 여러분의 사도직은 영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접촉! 여러분은 심장의 박동소리와 필요와 어쩌면 들려주려 하지 않는 목소리들을 들을 것인데, 그리스도의 감수성으로 감지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의 필요는 영원한 생명과 이 지상에서의 평화입니다. 여러분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깊이 결속되어야 하는데, 필요에 적합하고 선한 목자 예수 수녀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기에 영혼들은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친척들과 본당 사제들과 수도회 그리고 모든 자매들이고, 위로와 빛과 선을 가져다 주게 될 본당에 소속되어 있는 영혼들입니다.

(야고보 알베리오네, 빠스또렐레 수녀들에게, 1960 년 137-139)

아빠레시다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브라질)

(Nossa Senhora de Aparecida, rogai por nós)

트렌타 트레 동정녀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우루구아이)

(Virgen de los Treinta y tre, ruega por nosotros)

7 월 10 일

방향설정과 식별

아르헨티나에 현존하는 자매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성부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도록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아들 예수를 주신다.**

성령청원 기도를 바칩시다.

창세기에 의한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야곱은 브에르 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그곳의 돌 하나를 가져다 머리에 베고 그곳에 누워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며 이사악의 하느님인 주님이다. 나는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싸여 말하였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28,10-13, 15-16)

화답송

- | | |
|-------------------------------|--------------------------|
| ○ 높으신 분의 보호아래 사는 이는 | ●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밤을 지내리라. |
| ○ 주님께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라고 말하리라. | ● 나의 하느님께 의지하리라. |
|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밤을 지내리라. |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이 모두 당신 것이옵니다. 당신께서는 저희가 의식하지 못할 때도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시오니, 인성과 신성을 받아들여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당신의 아드님과 일치되어 당신 안에 받아들여지고 머무를 수 있기를 청합니다.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아드님 안에서 자녀들을 출산하는 어머니의 놀라움을 선포하도록 당신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딸 마리아의 중재로 당신께 청합니다. 아멘.

어머니이며 자매인 마리아와 함께

천주의 모친은 하느님께서 오신 매우 거룩한 몸으로 세상이 나기 전에 이미 준비되었다. 천주의 모친의 거룩함은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을 지닌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경지에 있었고,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을 출산하였기에 더 정확하게 천주의 모친이자 인류의 모친으로 ‘테오 안트로토코스’라 부르기에 이르렀다. 이 새로운 하와는 아담처럼 자신 안에 전 인류를 포함하고 있어서 전 인류와 당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육을 주는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어머니(창세 3,20)”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요한 19, 27).” 라고 말씀하셨다. 인류를 대표하는 요한은 자신의 어머니를 되 찾는다.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동정녀께 잉태되었다. 이처럼 믿는 모든 이들은 성령으로 동정녀의 피앗에서 재 탄생한다. 우리도 신앙으로 천주의 모친으로 태어났다.

(P. 이브도키모브, 여성과 세상의 구원, 193-195쪽, 매일의 독서, 피엠메, 카살레 몬페라또 1994년 83쪽)

루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Nuestra Señora de Luján, ruega por nosotros.)

총통술 선출

페루와 칠레에 현존하는 자매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자유롭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성령청원 기도를 바칩시다.

잠언에 의한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내 아들이야, 네가 만일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계명을 네 안에 간직한다면
지혜에 네 귀를 기울이고 슬기에 네 마음을 모은다면
그래, 네가 예지를 부르고 슬기를 향해 네 목소리를 높인다면
네가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물을 찾듯 그것을 찾는다면
그때에 너는 주님 경외함을 깨닫고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찾아 얻으리라.
주님께서서는 지혜를 주시고 그분 입에서는 지식과 슬기가 나온다. (2,1-6)

화답송

- 주님께서서는 올바르게 사는 이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나이다. ● 정의의 좁은 길을 밝히시나이다.
- 올곧음과 선한 모든 길 ● 공평과 정의를 알게 될 것이나이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주님께서서는 올바르게 사는 이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나이다.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당신은 성부의 가슴에서 쉬는 지혜이시고, 성부의 말씀을 간직하려고 성부께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과 저희 수도회가, 특히 총회를 위해 모여있는 자매들이 성부와 성령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자유롭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는 일에 투신 할 수 있도록 당신과 일치하게 하소서. 새 인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중재로 청하나이다. 아멘.

어머니이며 자매인 마리아와 함께

성모님은 신앙과 하느님의 뜻에 동참하는 여정의 정점에서 무엇을 대표하시는가? 인류, 교회를 대표한다. 하느님의 계획을 완전히 따르고 전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의 아버지라 불리었던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포기를 통하여 충만한 교회를 선물로 받는다. 하느님의 손에 자기자신 전 존재를 두었고,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모두를, 즉 '당신의 아들'까지도 포기하였기에 하느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자의 몸을 받았는데, 성자의 몸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로서 태동하는 교회 안에 살게 되는 몸이다. 마리아는 모든 인류보다도 더 예수님의 희생제물과 인류를 위한 사랑과 하느님의 계획에 투신하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 봉헌으로 새로운 인류를 선물로 받을 수 있었다.

(C.M. 마르티니, 주님의 길에서, 피엠메, 카살레 몬페라토 1985년 214쪽)

복음화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페루)

(Nuestra Señora de le Evangelización, ruega por nosotros.)

마이푸의 카르멘의 동정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칠레)

(Virgen del Carmen de Maipù, ruega por nosotros.)

7 월 12 일

지속해서 총통솔 선출

볼리비아에 현존하는 자매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께서는

풍요롭거나 빈궁하거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청원 기도를 바칩시다.

창세기에 의한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이집트 땅에 들었던 칠 년 대풍이 끝났다. 그러자 요셉이 말한 대로 칠 년 기근이 시작되었다. 모든 나라에 기근이 들었지만, 이집트 온 땅에는 빵이 있었다. 이집트 온 땅에 기근이 들자, 백성이 파라오에게 빵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파라오는 모든 이집트인에게 말하였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기근이 온 땅에 퍼지자, 요셉은 곡식 창고를 모두 열고 이집트인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렇게 가난한 땅에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는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 그곳으로 들어갔다. (41,53-56a; 42,5)

화답송

- 주님의 계획은 영원히 존재하리라. ● 모든 세대를 위한 당신 마음의 계획
- 하느님으로 주님을 모시는 나라는 복되도다. ● 당신의 유산으로 선택한 백성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주님의 계획은 영원히 존재하리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께 식탁과 나눔과 형제애의 기쁨이 부족해진 인류의 외침이 올라갑니다. 당신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가 마리아처럼 쪼개어진 빵인 성자 예수를 내어주는 ‘빵집’을 열어주소서.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모든 이들이 배부르게 하고, 백배의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는 가난과 단순함으로 우리 자신을 먹을 것으로 내어 주는 직무를 주님께 받게 하소서. 아멘.

어머니이며 자매인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는 신앙을 통하여 시온의 딸이 되어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낳고, 끝까지 믿고 신뢰할만한 교회를 낳았다. 십자가 속에서도 부활하리라는 신앙으로 어머니로서 신앙인으로서 고통 중에서도 신앙인들의 어머니인 교회의 참된 표상이 되었다. 예수께서 마리아를 바라보고 그에게 “여인이여, 이 사람이 당신 아들입니다.”라고 말한 바와 같다. 사랑 받고 충실한 제자는 어머니인 교회의 참된 아들이다. 마리아는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부활에 대한 신앙과 희망으로 친교를 이루어내는 교회의 표상이다.

(M. 투리안,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 교회의 모상. 브레샤. 1980년 174)

코파까바나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Nuestra Señora de Copacabana, ruega por nosotros.)

13 LUGLIO

방향설정, 우선권과 활동지침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에 현존하는 자매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앞서가고, 거리를 좁히며 화해를 준비한다.

성령청원 기도를 바칩시다.

창세기에 의한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서는, 그들이 가까이 오자 다시 말하였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 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 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45,4-5)

화답송

- 주님께서는 그 땅에 일용할 빵을 없애고 흉년이 들게 하였도다.
- 그들 앞에 그들이 팔아 넘겼던 요셉을 보내었도다.
- 그들의 밭에 족쇄가 채워지고 목에 쇠고랑이 채워졌도다.
- 주님의 말씀과 신탁이 실현되기까지는 무고함이 시험을 당하였도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그들 앞에 그들이 팔아 넘겼던 요셉을 보내었도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당신께서는 모든 이를 연민으로 대하시고 인류의 죄에 눈을 감으십니다. 인간을 당신의 모상대로 만드시고 용서하는 사랑의 싹을 그 안에 넣어주셨으니 감사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기쁨을 되찾고자 하오니, 자비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받은 약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모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치소서. 아멘.

어머니이며 자매인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죄악과 하느님 자비의 극적인 만남을 당신 몸으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십자가 아래에 어머니와 벗이 있는 것을 보시고 위로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성부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을 완수하시기 직전,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께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요한 19,26-27).”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요한 19,27).”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 어머니를 향한 그분의 헌신과 관심의 표현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구원 사명의 신비를 드러내 보여주는 계시의 한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요한 19,28).”는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새 창조의 절정인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마리아께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없이 걸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기에 우리를 그분께 데려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은 이 어머니의

모습에서 복음의 모든 신비를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교회가 이러한 여성다운 모습을 지니기를 바라십니다. 마리아께서는 탁월한 믿음으로 세상에 주님을 낳아주셨고, 이제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묵시 12,17)”과도 동행해 주십니다. 성모님과 교회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긴밀한 관계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스텔라의 이사악 복자는 이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교회를 동정녀이고 어머니라고 말한 부분은 특히 동정 마리아를 말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어느 모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느님 말씀의 신부, 그리스도의 어머니, 딸, 누이, 동정녀, 풍요의 어머니가 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태중에서 아홉 달 동안 머무르셨고, 세상 끝 날 까지 교회의 믿음의 성막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분께서는 세세 대대로 충실한 영혼의 이해와 사랑 안에 머무르실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복음의 기쁨, 2013년 285)

키퀴퀴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콜롬비아)

(Nuestra Señora de Chiquinquirá, ruega por nosotros.)

코로모토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베네수엘라)

(Nuestra Señora de Coromoto, ruega por nosotros.)

7 월 14 일

방향설정, 우선권과 활동지침

멕시코에 현존하는 자매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 놓을 수 없다

성령청원 기도를 바칩시다.

창세기에 의한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요셉은 자기 병거를 준비시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러 고센으로 올라갔다. 요셉은 그를 보자 목을 껴안았다. 목을 껴안은 채 한참 울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너의 얼굴을 보고 네가 살아 있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기꺼이 죽을 수 있겠구나.” (46,29-30)

화답송

- 주님을 의탁하고 선을 행하여라. ● 안전한 땅에서 살고 양을 치리라.
- 너의 생명을 주님께 맡겨라. ● 주님께 의탁하면 주님께서 움직이시리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주님을 의탁하고 선을 행하여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을 울게 놔두지 않으실 때,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게 하소서. 당신의 끝없는 자비에 폭 감싸여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더 이상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더 이상 성자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이 사라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십자가 곁을 굳세게 지키셨던 여인인 마리아님, 희망과 신뢰가 넘치게 하는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갈 때 저희를 동반하소서. 아멘.

어머니이며 자매인 마리아와 함께

시련 속에 있는 여인들이여, 여러분은 마리아의 모상에 따라 십자가 아래 곳곳이 서고, 역사 안에서 종종 사람들에게 순교에 이르기까지 증거할 수 있는 끝까지 투쟁하는 힘을 많이 주었으니, 다시 한번 큰 모험 중에 있는 인류가 인내와 본래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되어 대담함을 되찾도록 도와주소서.

(바오로 6 세가 여성들에게 한 메시지,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의 폐막, 1965 년 12 월 8 일)

과달루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Nuestra Señora de Guadalupe, ruega por nosotros.)

7 월 15 일

2017 - 2023 의 6 년간 프로그램을 위한 활동라인 설정

쿠바에 사는 자매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용서하시는 사랑을 길어 올리며 생명의 빵을 준비합니다

성령청원 기도를 바칩시다.

창세기에 의한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요셉의 형제들도 직접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아우님의 종들일세.”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을 부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며 다정하게 이야기하였다. (50,18-21)

화답송

- 주님께 감사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 ● 백성들 사이에서 주님의 업적을 선포하자.
-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자. ● 주님의 기적과 그분의 정의를 기억하자.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주님께 감사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

기도합니다.

모든 위로의 원천이신 아버지, 당신의 생각은 저희의 생각과는 달리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한데 모으게 하십니다. 교회의 모든 여정에서 인간의 모든 현실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당신 자신을 내어 놓으신 성자의 증거자들로 인하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리아의 신앙 안에서 화해의 중재자가 되도록 성령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어머니이며 자매인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께서는 박탈당하고 궁핍하며 고통 받는 인류와 성자 사이에 서신다. ‘가운데에’ 서시는데, 방관자가 아니라 어머니의 자리에 서시어 중재자가 되신다. 인류의 필요에 관하여 성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인식만이 아니라 알리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중재는 조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마리아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조정’한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 인간을 여러 형태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악에서 자유롭게 하고, 인간적인 역경에서 구하는 성자의 메시아적인 힘 혹은 구원하는 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나자렛의 고향 사람들에게 읽으셨던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인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은 다시 보게 하고.....(루카 4,18)”와 같다.

(요한 바오로 2 세, 구세주의 어머니, 1987 년 21 항)

코브레의 카리다 동정녀,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Virgen de la Caridad del Cobre, ruega por nosotros.)

7 월 16 일
제 9 차 총회 공식 폐막

마리아, 우리는 당신께 대한 신뢰 안에서 걸어 갈 것입니다

성모의 노래를 노래합시다.

성모찬송의 메아리

각 자매는 성모의 노래 중에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소리 높여 읊는다. 이어서 총회 거행에서 찬미의 동기가 되는 것을 추가한다.

영광송으로 마친다.....

이사야 예언서에 의한 주님의 말씀을 들겠습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정녕 너희는 기뻐하며 떠나고 평화로이 인도되리라. 산과 언덕들은 너희 앞에서 기뻐 소리치고 들의 나무들은 모두 손뼉을 치리라. 가시덤불 대신 방백나무가 올라오고 쐬기풀 대신 도금양나무가 올라오리라. 이 일은 주님께 영예가 되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표징이 되리라. (55,10-13)

어머니이며 자매인 마리아와 함께

그리스도의 상처 난 옆구리에서 태어난 교회의 만물이신 하느님의 거룩하신 어머니, 십자가를 들고 계시고, 당신의 태중에서 성자께서 구원하신 새 인류가 생겨난다.

목자께서는 흩어진 자녀들을 모으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어머니는 이들을 받아들여 목자에게 인도한다. 선한목자의 어머니는 태어나는 교회를 받아들이고 지지 않는 생명을 향한 여정을 동반한다.

마리아처럼 우리 빠스또렐레도 하느님의 백성을 형성하는 모든 이들의 어머니요 자매가 되는 선물을 성령으로부터 받읍시다.

(선한 목자의 예수 성당 설명서, 2012 년 로마, 총원)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공의 비결 기도를 바칩시다.

주 예수님, 마리아와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를 통하여 당신께 드리는 저희의 약속을 받아주소서. 저희는 당신의 높으신 뜻에 합당하게 되고 당신이 바라시는 완덕과 천상 영광에 도달해야 하며 사목 사도직을 거룩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정신, 지식, 사도직, 청빈 등 모든 면에 약하고 무지하고 무력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길 진리 생명이시고 부활이시며, 오직 한 분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선이시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성부께 청하면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당신께만 의탁합니다.

저희는 생활과 사도직, 그리고 무슨 일에서나 마음을 다하여 한결같이 당신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를 위하여 일할 것을 약속하고 다짐합니다. 당신은 저희에게 정신, 은총, 지식, 선을 행하는 수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무한히 선하심과 저희의 특별한 성소의 필요에 따라 영적 작업, 공부, 사도직, 청빈의 결실을 배가시켜 주소서. 저희는 당신을 의심치 않고 저희의 항구하지 못함과 연약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목자님,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사도에게 하셨음과 같이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소서. 지상에서는 우리들의 아버지 성베드로와 성바오로를 본받고 하늘에서는 그들과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2017 년 6 월 총원